

80年代 世界經濟의 展望과 韓國經濟의 問題點

柳 厚 珪

〈韓國銀行國際金融部國際金融課〉

I. 序 言

1980 년대에 들어 世界經濟는 이미 1970 년대에 경험한 바 있는 經濟不況과 高率의 「인플레이」가 並行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여전히 汎世界的으로 蔓延되고 있는 가운데 不安과 昏迷의 수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미 1973 年末頃 OPEC (石油輸出國機構, The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가 自國의 石油資源保護와 당시 「이스라엘」·「아랍」圈의 對立激化에 따른 經濟報復을 模索하여 이른바 石油武器化를 主唱하면서 油價의 大幅引上과 對西方石油輸出을 規制한데서 비롯된 石油危機(Oil Crisis)는 世界各國의 經濟를 高「인플레이」와 不況의 수렁으로 몰아 넣었고 1975 年 이후 各國의 景氣回復을 위한 金融緩和 및 租稅減免措置, 高「인플레이」의 鎮靜을 위한 賃金·物價 「가이드·라인」 強化 및 「에너지」 消費節減과 代替 「에너지」 開發政策의 追求에 힘입어 1976 年 이후에 들어 世界 경제는 小幅의 이나마 回復局面을 맞이하였으나 1979 年中 수차에 걸친 OPEC 油價 인상으로 世界 경제는 또다시 高「인플레이」와 不況의 수렁에 빠져들기 시작하여 이른바 第2次石油危機를 超來하였다.

한편 1979 年中 油價引上에 따른 OPEC 의 經常收支黑字가 再次 累積되면서 世界 各國의 國際收支不均衡이 한층 深化되는 한편 先進國과 開發國間 또는 產油國과 非產油國間의 國際資本移動이 梗塞되어 國際金融市場狀況의 重要와 不

安을 加重시키는 契機가 되었다. 아울러 世界貿易量의 전반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各國의 保護貿易主義傾向이 증증하면서 世界貿易環境은 더욱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0 年代初에만 해도 基軸通貨의 면모를 誇示해 온 美「달러」貨의 價値가 持續적으로 不安과 動搖를 거듭함에 따라 美「달러」貨를 基軸通貨로 하는 管理變動換率體制가 붕괴되고 본격적인 複數準備通貨制度로 進行되는 가운데 國際外換市場이 크게 昏迷를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이같은 美「달러」貨의 準備通貨로서의 역할 감소와 並行, 西獨 「마르크」貨, 英國 「파운드」貨, 日本 「엔」貨등 여타 선진국의 強勢通貨가 準備通貨로서 選好되면서 國際通貨秩序가 다각적으로 개편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처럼 1970 년대에 들어 基調적으로 양상이 뚜렷이 변모해 온 世界經濟는 1980 년대에 들어서도 諸般與件이 호전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高「인플레이」와 不況의 수렁은 점차 깊어져 가고 國際貿易市場과 國際金融市場의 環境도 점차 梗塞의 度가 深化되어가고만 있다. 1980 년에 들어 韓國經濟 역시 「마이너스」 成長을 記錄, 1960 년대 이후 持續해 온 高度成長의 急「템포」가 一時에 붕괴되면서 深刻한 經濟不況下에서 物價, 雇傭, 外換 및 國際收支 등 여러 면에서 衝擊과 憂慮를 加重시키고 있다.

이러한 時點下에서 急變하는 世界 경제의 潮流를 迅速히 파악함과 동시에 韓國經濟의 脆弱點을 指適, 適切한 대책을 강구해 보는 것이

1980 년대의 韓國經濟에서 무엇보다도 時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II. 80年代 世界經濟의 展望

1. 經濟成長 및 雇傭

1980 년에 들어와서 世界經濟는 1979 年中 OPEC 産油國의 持續的인 油價引上으로 高「인플레이」가 汎世界的으로 蔓延됨에 따라 各國의 緊縮政策基調가 強化되고 消費需要가 萎縮되어 美國, 英國, 「캐나다」 등이 急激한 生産減退를 겪었고 日本, 西獨 등 비교적 好況을 持續해 온 國家들도 高成長趨勢가 鈍化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第2次石油危機의 現象이 汎世界的으로 深化되어가고 있다.

美國經濟는 이미 1980 년 2월 이후 不況의 局面에 突入하여 4월 이후는 急激한 下降局面을 보였고 6월 이후 부분적인 景氣回復 조짐에도 불구하고 回復 「템포」가 여전히 不振하여 전반적으로 1981 년 上半期까지는 經濟不況이 持續될 展望이며 1981 년 下半期에 들어서야 本格的인 回復局面에 突入, 正常的인 成長勢를 回

復할 展望이다.

英國, 「캐나다」 등도 1980 년 5월 이후 점차적으로 生産이 鈍化되어 美國에 이어 不況局面에 突入하고 있다. 第1次石油危機 때와는 달리 美國經濟의 沈滯가 여타 先進國經濟로 急速히 波及되고 있지는 않지만 세계 경제는 2次大戰 이후 1974 ~ 75 년 중의 經濟不況에 버금가는 汎世界的인 經濟不況이 1981 년 말까지는 持續될 것으로 豫상되어 1981 년까지 主要先進國의 經濟成長率은 계속 不振할 展望이다.

長期的으로 보아도 세계 경제가 1982 년 이후 正常的인 成長勢를 回復한다고 하더라도 高成長에 따른 高「인플레이」가 再現됨에 따라 OPEC 産油國도 實質油價補填을 위해 계속 油價를 引上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세계 경제의 回復도 점차적으로 不況의 局面을 再現할 可能性이 潛在하고 있다. 景氣循環의 時差, 세계 「인플레이」 推移와 OPEC 油價引上間의 函數關係를 고려할 때 1982 년 이후 세계 경제가 回復局面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최소 2년 이내에는 다시 不況의 수렁에 빠져들 可能性이 높아 대체적으로 1984 ~ 1985 년 중에는 또 한차례의 經濟不

GNP 成長率推移 및 展望

<表-1>

(單位: %)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英國	2.5	-0.3	-1.7	2.9	5.5	4.4	3.4	2.0	2.2	2.5	2.0
西獨	3.5	4.1	1.4	3.2	3.2	3.2	3.1	2.7	2.5	3.0	3.3
프랑스	3.3	2.8	1.5	3.3	3.7	4.1	3.8	3.5	3.6	4.0	4.0
벨기에	1.8	3.0	0.6	2.9	2.7	4.1	3.3	3.0	2.9	3.2	2.7
이탈리아	2.6	4.2	1.4	2.8	4.1	4.0	3.6	2.3	2.7	3.8	3.7
네덜란드	2.1	2.7	1.2	2.7	3.2	3.3	2.7	1.8	2.5	2.6	2.9
스웨덴	2.8	4.3	3.1	1.7	2.2	2.4	2.3	1.3	2.2	3.5	3.1
스페인	2.9	2.8	2.2	3.1	3.3	5.9	5.3	4.9	4.5	5.4	6.0
멕시코	6.6	6.4	6.2	7.5	7.2	5.5	6.9	7.2	6.8	6.5	6.8
브라질	6.0	7.1	4.9	4.6	5.2	5.5	6.0	5.5	5.2	5.4	5.3
日本	5.6	5.8	3.5	4.2	5.6	5.3	4.5	4.2	3.9	4.2	4.4
캐나다	3.4	3.0	0.9	3.0	4.2	4.7	3.3	1.5	3.0	4.7	3.8
美國	4.4	1.9	-1.4	2.7	4.6	4.7	2.7	0.5	3.3	3.8	2.9
유럽全體	3.0	3.0	1.1	3.0	3.7	3.9	3.5	2.8	2.9	3.4	3.5
世界全體(美國제외)	3.9	3.9	2.0	3.5	4.4	4.4	4.0	3.4	3.4	4.0	4.0
世界全體	4.1	3.0	0.5	3.2	4.5	4.5	3.4	2.1	3.4	3.9	3.5

資料: Chase Manhattan Bank, Chase Econometric, 1980, Vol. I.

況이 再現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세계 경제의 不況이 加重됨과 並行하여 전반적인 企業投資가 不振함에 따라 新規雇傭의 低調 현상이 뚜렷해지고 高「인플레이」에 따른 實質需要減退補填을 위한 賃金引上壓力도 더욱 增大됨에 따라 構造的인 不況業種의 解雇率이 높아짐으로써 失業率이 전세계적으로 1980 년대에 들어 持續的인 上昇勢를 보이고 있다.

美國의 경우 不況의 深度가 깊었던 1980년 4월~5월 중 失業率이 7.8%를 記錄하였고 英國, 「캐나다」 등도 失業率이 高水準을 持續하였다. 日本, 西獨 등도 不況의 深度가 깊어짐에 따라 마찬가지로 失業率도 上昇하는 推移를 보였다. 1980년 중 OECD (西方 24 個國 經濟協力開發機構,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諸國의 平均失業率은 6.0%의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不況이 종식될 1981년까지도 失業率은 비교적 高水準을 持續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長期的으로 1980 년대에 있어서도 세계 경제의 不況이 再現될 可能性이 尙存하고 있고 失業率의 變動이 經濟成長의 回復速度에 비해 상대적으로 非彈力的이어서 상당히 緩慢히 변동하는 점 등을 考慮할 때 1980 년대에 있어 高失業의 문제는 各國 經濟政策의 주요한 優先課題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主要國의 失業率 推移 (單位: %)

	1977	1978	1979 ¹⁾	1980 (展望)
美 國	7.1	6.0	5.7	7.2
日 本	2.0	2.2	2.1	2.3
西 獨	4.5	4.3	3.9	4.1
프 랑 스	4.9	5.2	6.0	6.8
英 國	5.8	5.8	5.4	6.6
이탈리아	7.2	7.2	7.8	8.4
캐 나 다	8.1	8.4	7.7	8.3
OECD 全體	5.3	5.2	5.1	6.0

註: 1) 1/4 ~ 3/4 分期 平均임.

資料: OECD, Economic Outlook, 1979. 12
Main Economic Indicators, 1979. 11

2. 物 價

1980 년대에도 石油價 및 國際原資材價格이 계속 上昇勢를 보여 汎世界的인 高「인플레이」현상을 主導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超過需要에 의한 「디맨드·풀」(demand-full) 「인플레이션」이 야기되었으나 1970년대 중반 이후 石油危機를 계기로 「코스트·푸시」(cost push) 「인플레이션」 현상이 慢性化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1980 년대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1979년부터 油價引上을 持續的으로 斷行해 온 OPEC 產油國은 公示油價를 32U\$/「배럴」까지 引上시켰으며 81년 말까지는 37U\$/「배럴」, 83년 말까지는 50U\$/「배럴」까지 引上시킬 展望이며 第3次石油危機 등 石油供給狀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는 85년 말까지 油價가 100U\$/「배럴」까지 上昇할 可能性도 排除할 수는 없다.

전반적으로 80년대 「인플레이」가 超過需要보다도 「코스트·푸시」要因에 의해 야기될 것으로 보이는 理由는 80년대 중반까지 세계 경제는 雇傭擴大를 통한 成長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超過需要의 壓力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反面 勞動生産性伸張率의 鈍化, 設備稼動率의 低下, 持續的인 賃金上昇, 石油價 및 國際原資材價格의 急騰 등, 「코스트·푸시」要因이 보다 顯在化 될 것이기 때문이다.

先進國의 消費者物價上昇率은 1970년대의 8%水準에서 80년대에는 7%수준으로 小幅度鈍化될 展望이나 西獨과 日本 및 「스위스」 등은 扎实的인 成長勢와 並行, 상대적으로 낮은 上昇率을 보일 것이며 英國, 「이탈리아」, 「프랑스」 등은 10%臺의 높은 上昇率을 보일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또한 開途國들은 先進國의 2배 이상에 달하는 12~14%의 높은 「인플레이」率을 나타낼 것이며 특히 「브라질」은 30~40%臺의 超「인플레이」현상이 나타날 展望으로 보아 1980년대에 非產油開途國의 經濟政策上의 最優先課題는 高「인플레이」抑制政策에 놓여질 것으로 보인다.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美 國	11.2	10.4	8.4	8.5	7.6	7.4	6.8	6.1	6.4	6.6
日 本	4.3	9.3	5.7	6.0	6.9	7.6	7.1	7.5	8.0	8.4
캐 나 다	8.9	7.8	7.0	7.5	7.0	6.8	6.5	5.8	5.4	5.2
英 國	13.6	16.7	12.7	9.5	8.4	8.0	7.8	7.5	6.9	6.1
西 獨	4.3	3.9	3.5	3.4	4.1	3.8	3.7	3.6	3.7	3.9
프 랑 스	10.7	11.8	11.6	10.9	9.5	9.0	9.1	9.3	9.3	9.1
이 탈 리 아	14.6	16.3	15.4	13.5	12.9	12.2	12.3	13.0	13.0	11.9
네 델 란 드	4.4	5.9	5.4	5.7	5.1	4.8	4.4	4.6	4.5	5.4
벨 기 에	4.8	6.7	6.0	5.6	5.7	5.4	5.0	4.4	4.2	4.5
스 페 인	16.4	19.7	16.9	16.0	14.4	13.4	12.9	12.4	12.1	12.2
멕시코	17.9	19.5	17.3	14.8	13.7	12.3	12.1	12.8	12.1	11.7
브 라 질	48.2	58.5	49.5	43.0	44.0	40.0	40.0	32.0	30.1	27.0

資料: Chase Manhattan Bank, Chase Econometric, 1980, Vol. I.

3. 貿 易

1980 년대에 들어 世界貿易은 초반에 景氣沈滯에 따른 각국의 輸入需要減退를 反映하여 不振한 양상을 免하기 어려울 것 같고 후반에 들어서서는 안정적인 石油需給狀況이 유지되면서 세계 경제가 回復勢로 突入함에 따라 다소 伸張勢를 回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1960년과 1970년대 초반에 持續하였던 急伸張勢를 期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전반적으로 先進諸國의 貿易伸張率은 景氣沈滯를 反映, 鈍化될 것으로 예상되며 產油國 및 新興工業國들은 工業化進前에 따른 「플랜트」 및 設備投資需要 擴大를 기반으로 1970년대보다도 輸入伸張率이 높아질 展望이다. 한편 非產油開途國들은 高油價에 따른 石油輸入負擔이 加重될 것 같고 開發資金需要도 계속 擴大됨에 따라 慢性的인 經常收支赤字를 나타내게 될 것 같다.

1970 년대에 低賃金を 바탕으로 勞動集約인 輕工業品을 主宗으로 輸出에 活路를 찾아 온 中進國들은 賃金上昇에 따른 상대적인 比較優位의 상실, 先進國의 景氣沈滯와 保護貿易主義強化에 따른 交易條件의 惡化, 後發開途國과의 競爭深化 등에 따른 輸出市場占有率의 低下 등으

로 輸出伸張率이 매우 鈍化될 것으로 展望된다. 이에 따라 中進國들은 勞動集約的 産業構造를 脫皮, 技術集約度가 높고 附加價值率이 높은 輸出産業部門의 育成을 위해 과감한 産業構造 改編을 서두르게 될 것이다.

先進國의 保護貿易主義는 1980년대 전반에는 계속 強化되는 추세를 나타낼 것이나 후반에는 高「인플레이」의 鎮靜과 景氣回復에 따른 輸入需要의 擴大를 反映, 先·後進國間的 經濟交流가 활발해짐에 따라 점차 緩和될 展望이지만 顯著的 好轉可能性은 매우 不透明하다.

아울러 1970 년대에 急增勢를 보여 온 西歐諸國과 共產圈과의 東西貿易은 中共을 비롯한 共產國들의 工業化 추진으로 西歐의 技術과 「플랜트」 輸入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 西歐諸國의 輸出不振을 타개하기 위한 新市場으로서의 역할이 漸增될 것으로 展望된다.

4. 外換 및 國際金融

1980 년대에는 세계 경제가 景氣沈滯와 高「인플레이」가 並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뚜렷해지는 단계에서 시작하는 만큼 각국의 金融緊縮을 통한 高「인플레이」 抑制政策과 沈滯景氣를 浮揚하기 위한 選別的인 景氣回復政策이 적절히 調和된 政策混合(Policy Mix) 이

主要國의 貿易收支 展望

<表-4>

(單位: 10億 美달러)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美 國	-27.06	-25.41	-23.43	-17.97	-13.39	-13.41	-7.45	-14.83	-18.47	-22.63
日 本	-8.02	-20.42	-20.68	-16.66	14.80	-15.79	-16.69	-10.61	-3.48	9.44
캐 나 다	-0.36	-1.58	0.22	1.36	3.50	4.08	2.78	0.79	1.46	1.29
英 國	-10.30	-9.87	-10.62	-13.58	-15.68	-17.96	-19.99	-22.30	-23.87	-29.68
西 獨	12.65	7.05	9.89	9.44	9.17	10.31	8.94	10.96	14.69	19.04
프 랑 스	-7.22	-8.95	-6.74	-5.44	-8.58	-6.94	-7.16	-4.92	-3.46	-3.46
이탈리아	-3.28	-4.28	-5.86	-5.51	-5.82	-7.85	-9.33	-8.70	-8.83	-9.21
네덜란드	-4.60	-4.63	-4.75	-5.94	-6.49	-6.51	-7.01	-7.56	-8.30	-8.23
벨기에	-5.78	-6.98	-5.82	-4.56	-5.47	-6.06	-6.87	-7.47	-10.13	-12.57
스페인	-4.90	-5.35	-6.49	-7.90	-6.20	-4.25	-5.07	-6.63	-7.22	-7.11
멕시코	-2.27	-1.52	0.37	3.11	5.04	6.80	7.51	9.24	11.45	13.65
브라질	-2.71	-3.76	-2.31	-0.97	-0.09	-0.15	-0.41	1.24	1.41	2.07

資料: Chase Manhattan Bank, Chase Econometric, 1980, Vol. I.

反復的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傾向 속에서 基軸通貨로서의 美「달러」貨의 역할은 이따금 動搖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最近 「테헤란」 주재 美人質을 둘러싼 美·「이란」 對立事態, 蘇聯의 「아프가니스탄」 侵攻, 「폴란드」의 騷擾事態, 「이란」·「이라크」 間의 全面戰 등 國際政治政勢에 美「달러」貨의 價値가 敏感하게 反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基軸通貨인 美「달러」貨 價値의 不安은 國際通貨의 不安要因으로 作用, 各國의 準備資産多樣化(Reserve Diversitication) 경향은 1980년대에 들어 더욱 深化, 複數準備通貨體制를 한층 強化하게 될 것이며 SDR이나 金의 通貨役割提高를 위한 國際通貨制度 改編論議를 더욱 활발히 일으킬 것으로 展望된다.

최근 美大統領에 당선된 「로널드·레이건」은 高「인플레이」抑制를 위한 金融緊縮의 強化와 美國經濟力의 擴大를 통한 「달러」強勢化를 부르짖고 있지만 「지미·카터」 行政府와 마찬가지로 「달러」強勢 維持를 위해서는 상당히 高전할 가능성이 많고 短時日內에 「달러」貨 價値의 安定基盤을 構築할 可能性도 不透明한 形편이다.

한편 過剩「달러」를 吸收하여 國際通貨의 安定을 도모하고 SDR을 國際通貨制度內에서 準

備資産으로 活用하기 위한 方案으로 IMF에서 論議되어 온 代替計定(Substitution Account)은 이미 1979년 10월 IMF 年次總會에서 設立原則에 대한 合意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 10월 IMF-IBRD 年次總會에서는 別다른 合意成果를 보지 못했지만 長期的으로는 創設이 可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IMF 代替計定の 創設論議, 1979년 3월에 발족한 EMS內 ECU의 役割增大, OPEC의 油價代錢 決濟通貨多樣化 論議, 金의 通貨體制還元 論議 등은 美「달러」貨의 役割을 계속 縮小시키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1980년대 國際金融市場은 「오일·머니」의 流入에 따른 資金供給能力의 增大, 非産油 開途國의 國際收支赤字補填을 위한 借入需要의 增大로 市場規模가 다소 증대될 것이나 「오일·머니」還流에 따른 汎世界的인 「인플레이션」誘發, 國際通貨市場의 不安要因增大, 「유로」銀行間의 지나친 競爭誘發 등으로 이미 「유로」市場 規制論이 대두되기 시작하고 있고 79年中 OPEC 油價리상에 따른 大規模 「오일·머니」累積이 進行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産油國의 輸入需要가 不振함에 따라 「오일·머니」의 還流에 제동이 걸리고 있으며 「유로」銀行들이 貸出限度(Exposure Ceiling)에 到達, 積極적

인 金融中介活動에 지장이 超來됨에 따라 「유로」市場의 急成長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1970년대 두차례에 걸친 石油危機로 累積되어 온 國際收支 赤字國의 對外債務는 1980년대에도 계속 확대될 것이며 특히 非産油開途國은 外債償還負擔 加重으로 累積債務 償還問題가 國際金融市場의 주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유로」銀行들은 國別信認度(Country Ris)의 再評價, 債務不履行規制條件의 強化 등 信用供與活動에 신중한 姿勢를 堅持, 國際金融市場이 借入者市場으로부터 供與者市場으로 轉換됨에 따라 借入國의 借入條件도 加算金利(Spread)의 上昇, 期間의 短期化 등으로 不利해질 것이며 國別差等化 현상이 더욱 深化될 것이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오일·머니」還流의 새

剩餘 「오일·머니」 推移
〈表-5〉 (單位:10億弗)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輸 出	109	104	125	144	127	199	287
(石 油)	102	97	118	135	127	188	276
輸 入	36	59	69	85	98	103	134
增加率(%)	-	63.9	16.9	23.2	15.3	5.1	30.1
貿易外收支	-7	-12	-19	-25	-32	-37	-52
剩 餘	66	33	37	34	7	59	101

資料: Morgan Guaranty Trust Co., World Financial Market 各號

로운 方向으로서 IMF, IBRD, IDA 등 國際金融機構의 活動強化가 부단히 要請될 것이며 이에 따라 IMF의 擴大信用制度(Extended Fund Facility) 및 補完金融制度(Supplementary Financing Facility) 등 기존 信用制度의 活用度가 漸高되고 새로운 「오일·퍼실리티」創設이나 代替計定 設立論議가 本軌道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IBRD, IDA, IADB, ADB 등의 財源擴充과 信用制度 改善努力도 부단히 강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OPEC의 對開途國援助 및 各國 中央銀行間 「채널」을 통한 直接貸出 形式에 의한 「오일·머니」還流方案도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주요 先進國의 金利는 1980년대 前半에는 高「인플레이션」으로 인한 金融緊縮의 強化로 高水準을 지속할 것으로 展望되며 1980년대 後半에 들어서야 油價安定의 기반 위에서 다소 下落할 展望이다. 이에 따라 美國金利와 「유로·달러」金利(3個月物)는 1984년까지는 10%이상의 高水準을 持續하다가 1985년 이후부터 小幅 下落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로·본드」利廻率도 역시 1984년까지는 高水準을 持續하다가 1985년 이후 小幅下落할 것으로 展望된다.

5. 「에너지」 및 資源

1980년대에도 石油需給狀況은 石油消費需要가 계속 增大됨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供給量이 부족함에 따라 계속 惡化될 것으로 전망된

主要國의 프라임 레이트 展望

〈表-6〉

(單位:%)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美 國	12.65	11.65	10.12	10.58	10.34	10.11	8.97	7.83	8.18	8.63
日 本	4.85	6.31	5.75	5.75	6.25	6.25	5.75	5.75	6.25	6.75
캐 나 다	12.83	12.74	10.09	10.43	10.59	10.59	9.46	8.57	8.82	8.93
英 國	14.74	17.15	16.41	17.21	17.49	17.22	15.09	13.86	14.55	15.17
西 獨	7.05	8.09	7.08	6.97	7.19	7.70	7.39	7.00	7.47	7.85
프 랑 스	10.41	10.61	10.33	10.33	10.71	10.86	10.59	10.13	10.22	10.32
이탈리아	15.90	18.00	16.44	15.60	16.36	15.82	15.96	15.29	15.48	15.92
네덜란드	11.03	11.09	8.64	8.60	9.61	10.36	9.76	9.76	10.25	10.67
벨 기 에	10.90	13.42	12.05	11.44	11.64	11.95	11.08	9.98	10.25	10.44

資料: Chase Manhattan Bank, Chase Econometric, 1980, Vol. I.

유로 달러 長期趨勢展望

<表-7>

(單位: %)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年平均 增加率		
											79-84	84-88	79-88
3 個月物	11.99	12.11	10.62	11.14	11.16	11.12	9.13	8.05	8.65	9.22	-1.5	-4.6	-2.9
6 個月物	11.98	11.82	10.53	11.18	11.31	11.36	9.37	8.34	8.89	9.47	-1.0	-4.4	-2.6
유로분드 (長期物)	8.39	8.47	7.97	7.88	7.91	7.82	7.30	6.84	6.85	7.06	-1.4	-2.5	-1.9
유로파운드 (3個月物)	14.66	14.81	14.12	14.89	14.54	14.14	11.78	10.33	10.56	10.77	-0.7	-6.6	-3.4
유로마르크 (3個月物)	6.22	6.16	6.25	6.91	6.81	6.98	5.02	3.48	4.07	4.61	2.4	-9.9	-3.3
유로달러규모 (英國市場) (單位: 10 億달러)	182.16	209.48	239.86	275.36	316.40	363.84	416.77	476.31	543.25	617.99	14.8	14.2	14.5
非美國借入	172.69	198.67	227.48	260.95	299.81	345.07	395.83	453.19	517.94	590.50	14.8	14.4	14.6
美國借入	9.46	10.81	12.38	14.41	16.59	18.77	20.95	23.13	25.31	27.49	14.7	10.0	12.6

資料: Chase Manhattan Bank, Chase Econometric, 1980. Vol. I.

對非產油開途國 資本移動推移 및 展望

<表-8>

	1975	1977	1980	展 望		年平均增 加率(%)		
				1985	1990	1980 ~85	1985 ~90	
資本移動規模 (億「달러」)	370	168	302	-4.0	215	156	-6.5	-6.5
低所得國 (億「달러」)	54	15	62	2.8	79	99	5.0	4.8
中所得國 (億「달러」)	316	153	240	-5.5	136	57	-11.0	-13.0

資料: IMF - IBRD: World Development Report, 1980

다. 이는 世界石油資源의 限界性, 產油國들의 政治, 經濟的인 이유로 인한 生産減縮 및 高油價政策 실시, 中東을 둘러싼 전쟁 위험 등 國際政治情勢의 동요 가능성과 產油國의 工業化 推進計劃 축소 및 國內消費 증대로 인한 石油輸出量 감소 전망 등에 기인한다.

또한 石油需給 사정의 惡化가 만성화됨에 따라 대체 「에너지」 開發促進을 위한 努力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이며 代替 「에너지」 開

發費用 및 환경 오염 문제 등의 制約要因이 예상되나 이에 따라 전체적인 「에너지」 부족 현상은 다소 緩和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石油需給의 不均衡으로 인해 1980년에는 油價가 33% 上昇할 것으로 전망되며 1981년에는 世界石油需給의 감소에 따라 약 10% 정도로 上昇勢가 鈍化될 것으로 보이며 1982~1983년 중에도 年平均 14%가 上昇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最近 「야마니」 「사우디」 石油相은 80년 11월 28일로 豫定된 「비인」 OPEC 理事會와 80년 12월 15일로 豫定된 「인도네시아」의 「발리」 OPEC 石油相會議를 前後하여 油價가 再引上될 것이라고 발표하여 조만간 油價再引上壓力이 加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1980년대에 있어서는 石油需給 문제와 並行하여 食糧 및 國際原資材價格도 계속 供給不足을 反映하여 上昇勢를 持續할 것으로 전망되며 점차로 資源武器化의 문제가 本軌道에 오를 것으로 보여 非產油開途國과 資源不足國의 經濟展望을 한층 困難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中·長期 自由世界 石油需給 展望

<表-9> (單位: 百萬 배럴 / 日)

	1980	1985	1990
總 需 要	51.9	59.8 ~ 60.4	74.5
總 供 給	52.7	58.0	61.2 ~ 65.2
O P E C	30.3	33.2	33.7
사 우 디	8.5	11 ~ 12.4	12.2 ~ 13.5
이 란	4.0	3.0 ~ 3.2	4.2 ~ 5.5
非OPEC	22.4	25.4	27
過 不 足	8.0	-1.8 ~ -2.4	-13.3 ~ -9.3

資料: IEA (國際 에너지 機構), 閣僚理事會報告
1979. 8 ~ 11

Ⅲ. 韓國經濟의 問題點

1. 概 況

전반적으로 韓國經濟는 79년 하반기 이후急速한 下降勢를 持續, 沈滯現象이 加速化되어 80년에 들어 經濟成長率은 1/4分期中 -1.8%, 2/4分期中 -5.9%의 負의 成長을 持續하였다.

失業率도 79년 2/4分期中 3.5%에서 80년 2/4分期中에는 4.4%로 上昇되었고 物價는 消費者物價上昇率이 79년 2/4分期中 12.1%에서 80년 2/4分期中 5.5%로 大폭 低下되었다.

對外去來面에서는 80년 2/4分期中 經常收支

<表-10> 主要 機關의 에너지 需要豫測

(單位: MOTE)

	1978 실적 ¹⁾	1985 年				1990 年			
		CEAI ²⁾	DOE ³⁾	IEA ⁴⁾	Exxon ⁵⁾	CEAI ²⁾	DOE ³⁾	IEA ⁴⁾	Exxon ⁵⁾
美 國	1,902	2,046	2,358	2,263	2,390	2,290	2,641	2,605	2,689
캐 나 다	216	242	282	262	-	281	307	297	-
벨 기 에	51	56	-	57	-	62	-	64	-
프 랑 스	190	216	256	-	-	252	307	-	-
이 탈 리 아	147	166	179	193	-	196	205	235	-
네 덜 란 드	75	85	-	90	-	98	-	99	-
스 페 인	72	94	-	94	-	127	-	114	-
英 國	211	222	256	245	-	241	282	269	-
西 獨	245	276	333	338	-	310	385	371	-
日 本	364	454	538	560	548	527	667	675	647
스웨덴 및 기타	247	248	376 ⁶⁾	299	-	340	407 ⁶⁾	340	-
합 계	3,521	3,910	4,578	-	-	4,437	5,201	-	-
경제성장률(%)	-	2.8	3.8	4.2	3.4 ⁷⁾	3.3	3.8	3.6	3.4 ⁷⁾

- 註: 1) "British Petroleum statistical Review of the World Oil Industry, 1978" British Petroleum Co., Ltd.
2) Chase Econometrics International Service, Energy Forecast, Standard Price Scenario, December, 1979
3) "Synopsis of Energy Facts and Projections", U.S. Department of Energy, Energy Information Agency, Annual Report to Congress, 1978, Central Scenario (series c), Tables 17, 18.
4) Energy Policies and Programmes of IEA Countries: 1978 Review,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utlook.
5) "World Energy Outlook," Exxon Corporation, April, 1978
6) Denmark, Finland, Iceland, Luxemburg, Portugal의 수요 포함.
7)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年率 4.8%로 가정하였음.

赤字幅이 12億「달러」를 記錄, 그간의 景氣沈滯에 따른 輸入需要의 鈍化가 反映되었다.

通貨金融面에서는 國內信用增加勢가 政府信用의 감소를 反映, 鈍化 조짐을 나타냈으나 海外部門의 通貨還收增大로 總通貨는 80년 2/4 分期中 3.8% 增加趨勢를 記錄, 從來의 急增勢가 鈍化되었고 通貨는 7.5% 減少趨勢를 나타내었다.

한편 이러한 國內外需要의 萎縮과 社會不安要因에 따라 加重된 沈滯現象의 타개를 위해 成長 및 雇傭促進과 國際收支改善을 위한 一連의 綜合經濟政策이 실시되어 總通貨增加目標率은 年初의 15% 및 20%에서 20% 및 25%로 上向調整되었고 최근에는 同 25%의 上限線에 拘束되지 않고 經濟狀態에 따라 伸縮의 自由로 調整될 方針임이 발표된 바 있다. 이와 아울러 輸出支援金融 融資單價의 引上과 輸出支援金融 金利引上留保 등의 조치로 輸出企業支援政策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부 與信金利가 小幅引下되었고 최근에는 6개월 時限附로 與受信金利가 모두 引下됨과 병행하여 企業租稅負擔 輕減을 위한 稅率引下措置가 단행된 바 있다.

이처럼 현재 韓國經濟의 諸般狀況은 1970년대와 같은 高度成長趨勢가 붕괴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韓國經濟는 政府豫算의 30%를 國防費에 充당해야만 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年平均 10.4%의 實質成長率과 26%의 높은 輸出增加率을 보였다. 石油消費의 全量을 輸入에 의존하면서도 1973~74년의 1次石油危機 때

에도 中東產油國과 經常收支均衡을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극복해 왔다. 그러나 分明히 현재의 상황은 70년대와는 大分히 상이한 難題들이 누적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1980년대의 韓國經濟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출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部門別로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生産 및 雇傭

1980년에 들어 産業生産은 國內外需要의 持續적인 減退를 反映하여 지속적으로 저조한 趨勢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 産業別로는 金屬鑛業의 生産不振으로 鑛業生産이 감소되고 製造業 生産도 重化學工業 및 食料品, 木製品 등이 減産되었으며 特殊分類別로 보면 設備投資不振에 따라 耐久生産財 및 消費財生産趨勢가 모두 減産趨勢를 나타내었다. 한편 그간 韓國經濟의 高度成長의 원동력이 되어온 海外需要가 先進諸國의 景氣沈滯, 高金利政策追求에 의한 緊縮基調 堅持, 保護貿易主義의 강화로 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 輸出産業部門의 생산도 크게 둔화되었다.

이러한 海外景氣沈滯要因의 급속한 國內經濟波及效果를 초래한 주요인은 첫째, 1970년대의 開發經濟計劃 추진중 韓國經濟가 지나치게 海外 依存型으로 편성되었으며 둘째, 機械 電子製品 등을 막론하고 생산의 주력 부문이 모두 「에너지」 집약적으로 육성되었으며 셋째, 高成長過程에서의 過剩投資 유발과 지나친 通貨膨脹으로 高「인플레이」를 유발, 富의 不均等分配狀態下에서 主力消費階層의 實質購買力이 감퇴되는 逆作用이 초래되었고 넷째, 輸出産業 및 重化學工業 등 특정 산업 부문에의 편중지원으로 資源, 資本 및 人力의 편중 분배 현상을 초래, 전체적인 國民經濟의 효율성을 왜곡, 저하시킨데서 찾을 수 있다.

1980년대의 세계 경제가 전반적인 景氣沈滯와 高「인플레이」가 並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원만히 탈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韓國經濟의 이와 같은 문제점은 適正 成長趨勢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 시급히 해결 되어야 할 선결 과제임은 自明한 일이라 할 수 있다.

主要經濟指標

〈表-11〉 (單位: %, 百萬弗)

	77	78	79	80(上) ¹⁾
GNP 成長率	10.3	11.6	7.1	04.0
總消費增加率	7.1	11.0	6.8	01.0
固定投資增加率	26.6	39.4	9.6	013.3
總輸出增加率	27.4	19.7	03.0	4.5
總輸入增加率	24.7	29.7	9.1	04.8
都賣物價上昇率	10.1	12.2	23.8	42.0
經常收支赤字	12.3	-1,085.2	-4,239.9	-2,694

註: 1) 前年同期 對比임.

資料: 韓國銀行

産業生産指標 增減率
 〈表-12〉 (單位：%)

	比前期(季節變動調整)			比前年同期		
	79.Ⅱ	80.Ⅰ	80.Ⅱ	79.Ⅱ	80.Ⅰ	80.Ⅱ
總指數	△0.9 (7.7)	2.1 (△4.1)	△2.3 (6.2)	15.0	△2.0	△3.4
鑛業	△4.0 (1.2)	1.3 (△5.4)	△0.5 (3.6)	△2.1	△1.3	1.1
製造業	△0.9 (7.9)	2.1 (△4.1)	△2.4 (6.4)	15.5	△2.3	△3.2
電氣業	4.2 (3.1)	1.3 (△2.2)	2.1 (1.9)	15.5	5.5	4.2

註：()안은 原指數 增減率
 資料：韓國銀行

生産費出荷 및 在庫指數 增減率
 〈表-13〉 (單位：%)

	比前期(季節變動調整)			比前年同期		
	79.Ⅱ	80.Ⅰ	80.Ⅱ	79.Ⅱ	80.Ⅰ	80.Ⅱ
〈生産者出荷〉						
總指數	△2.6 (7.1)	1.8 (△5.7)	△4.2 (4.8)	11.2	0.0	△2.1
鑛業	△4.3 (2.6)	4.2 (△3.9)	3.6 (10.9)	△4.4	△0.2	7.9
製造業	△2.1 (7.3)	1.9 (△5.8)	△4.5 (4.9)	11.3	△0.2	2.4
電氣業	3.8 (3.3)	△0.3 (△0.8)	1.5 (1.1)	16.4	7.1	4.8
〈生産者製品在庫〉						
總指數	16.7 (14.8)	0.9 (5.6)	15.2 (13.2)	26.3	44.2	42.1
鑛業	△3.9 (△9.9)	7.6 (5.4)	11.7 (6.5)	8.9	1.4	17.6
製造業	17.0 (15.2)	0.7 (5.7)	15.2 (13.2)	26.6	4.8	42.3

註：()안은 原指數 增減率
 資料：韓國銀行

한편 이와 같은 景氣沈滯過程에서 企業의 적절한 投資機會의 상실로 「플랜트」 및 設備投資가 감소됨에 따라 新規雇傭이 감소, 失業率도 1980년에 들어 와서 점차 증대되는 趨勢를 나타내고 있다.

세계 경제의 不況化가 進展될수록 韓國의 輸出産業生産도 급속히 감퇴되었고 상대적으로 低賃金を 기반으로 勞動集約的인 技術體系가 동요됨에 따라 失業率의 증가는 더욱 가중되었다. 이러한 失業率 증대의 주요한 요인은 첫째, 雇傭效果가 큰 內需産業 및 中小企業部門育에 대한 政策支援의 상대적인 輕視化 둘째, 企業의 적절한 投資機會捕捉努力의 부족과 低賃金에 의존하는 落後된 經營戰略에의 치중 셋째, 經營合理化 및 技術開發投資의 부진에 따른 勞動生産性向上의 부진 넷째, 開發經濟計劃의 遂行過程中 적극적인 所得政策 및 적절한 勞使問題調整政策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다는點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失業의 문제는 단순한 經濟問題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 문제이자 根本的인 國民福祉와 생존의 문제임을 감안할 때 雇傭增大역시 1980년대 韓國經濟의 주요한 과제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3. 通貨·金融 및 資本市場

1980년에 들어 國內信用의 增加幅 감소, 海外部門의 流動性 환수와 貯蓄性預金의 增加勢 지속으로 2/4分期末까지 通貨가 감소 추세를 지속하였다. 다만 7月中 貯蓄性預金의 감소로 通貨가 다시 增加勢를 再現하였으나 10月中 다시 감소 추세로 반전하였다.

한편 80년 2/4分期中 流通市場에서의 株式 및 債券去來가 모두 활발하였으나 發行市場에서의 會社債發行은 그간의 勞使分糾, 學生街頭示威 및 光州事態의 惡化 등을 反映, 매우 부진하였다. 이에 따라 2/4分期中 發行市場을 통한 資金調達總額은 2,760억원으로 1/4分기보다 141억원이 감소되었고 이 중 82%는 會社債을 통한 資金調達이었다.

전반적으로 70년대 이후 韓國經濟의 성장과 더불어 國內資本 동원의 극대화와 資本投資의 效率化에 대한 요청이 높아짐에 따라 金融機關의 與受信活動에 의존하던 間接金融의 방식에서 탈피, 證券市場의 육성을 통한 第2金融圈의 형성의 정책적으로 지원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證券市場의 상황은 항시 國內景氣의 沈滯時

通 貨 動 向

<表 - 14>

(單位 : 10 億 元)

	1980 年		增	減
	3 月 末	6 月 末	前 分 期 中	今 分 期 中
通 貨 (A)	3,200.3	2,960.9	-74.2	-239.4
(比前分期末, %)			(-2.3)	(-7.5)
(比前年同期末, %)			(20.2)	(16.7)
國內信用	12,969.9	13,870.1	1,143.6	900.2
海外部門	-120.2	-339.2	-356.4	-219.0
貯蓄性預金(△)	7,003.4	7,604.3	472.0	600.9
其他(△)	2,572.9	2,867.9	388.2	295.0
現金通貨	1,412.7	1,376.1	-191.3	-36.6
預金通貨	1,787.6	1,584.8	117.0	-202.8
本 源 通 貨 (B)	2,630.7	2,576.3	-837.3	-54.4
(比前分期末, %)			(-24.1)	(-2.1)
(比前年同期末, %)			(-4.7)	(-4.9)
貨幣發行額	1,651.6	1,605.5	-165.9	-46.1
支給準備預置金	979.1	970.8	-671.4	-8.3
總 通 貨 (C)	10,276.8	10,663.0	399.0	386.2
(比前分期末, %)			(4.0)	(3.8)
(比前年同期末, %)			(25.5)	(28.3)
現金通貨比率 (%)	44.1	46.5	-	-
通貨乘數 (A/B)	1,217	1,149	-	-
總通貨乘數 (C/B)	3,906	4,139	-	-

資料 : 韓國銀行

에는 加速的으로 沈滯됨에 따라 점차 확대되는 資金需要에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취약점은 근본적으로 物量經濟가 持續的인 成長, 貿易 및 對外去來의 급속한 膨脹, 海外部門의 通貨增發 요인 증대, 産業構造 고도화에 따른 資源의 開發輸入增大, 先進技術導入 및 開發 등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國內蓄積資本의 절대량이 부족한 데다가 효율적인 資本動員의 체계가 미비되어 投機性浮動資金을 원활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經濟狀況에 따른 伸縮的인 通貨信用政策 調整을 통해 物量經濟의 안정적인 성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되며 과도한 通貨增發에 따른 物價上昇 요인이 적절히 억제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國內資本의 절대적인 부족을 보완할 수 있도록 資本市場의 적극적인 국제화

證 券 市 場 動 向

<表 - 15>

(單位 : 百 萬 元)

	6 月 中	7 月 中	增 減
流 通 市 場	159,453	162,273	2,820
株式去來	82,108	59,633	-22,475
債券去來	77,345	102,494	25,149
發 行 市 場	71,210	94,270	23,060
株式	3,950	4,010	60
公 募	-	-	-
賣 出	-	-	-
有價增資	3,950	4,010	60
會 社 債	67,260	90,260	23,000
月平均株價指數 (1975.1.4 = 100)	150.6	148.7	-1.9

資料 : 韓國銀行

가 선행되어야 한다.

1980 년대에는 韓國經濟의 세계 경제 參與幅 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外資所

要規模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公的 「채널」에 의한 資本導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資本 자유화를 통한 國際資本市場의 「채널」 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4. 物 價

1970년대에는 韓國經濟의 高度成長과 並行하여 物價上昇率도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여 왔다. 1980년에 들어서 韓國經濟의 침체를 반영하여 物價上昇率이 鈍化勢를 보여 2/4 分期中 全國都賣物價가 4.3%를 기록, 1/4 分期中의 22.2%에서 急落勢를 나타내었고 全都市消費者物價도 5.5%를 記錄, 1/4 分期에 비해 騰幅이 크게 鎮靜되기는 하였으나 輸出物價가 石油危機에 따른 原價上昇要因에도 불구하고, 各국의 景氣沈滯에 따른 海外需要의 부진으로 0.7%의 微騰에 그친 반면, 輸入物價는 原油, 機械類, 食料品 등의 昂騰으로 5.4%의 높은 오름세를 나타내었다.

韓國經濟의 海外依存도가 높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沈滯時, 輸出不振과 輸出物價의 下落可能性이 있는 반면, 輸入物價는 여전히 높아 內需産業 및 輸出産業의 原價上昇을 초래, 전반적으로 國內物價 上昇要因은 여전히 加重되는 反

面, 國內景氣는 부진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國內의 消費階層은 政府의 資本形成 優先政策에 대체로 만족하여 貯蓄率이 매우 높았고 GDP 가운데 民間消費가 占하는 비율은 최근 10년간 15%가 하락하였다(대만의 경우 6% 下落). 그러나 그간의 高「인플레이」率(年平均 25%를 上廻)은 消費者들에게 資本形成政策의 약점을 노출시킴으로써 尙後 消費支出의 急増이 예상되며 현재의 沈滯景氣가 부분적으로 회복됨에 따라 消費需要도 더욱 확대, 高「인플레이」率을 재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반적으로 總「에너지」中 60% 이상을 輸入原油에 의존하고 있는 韓國經濟는 原油價格의 인상이 國內物價 상승에 파급되는 효과가 지대함을 감안, 産業構造의 개편을 통해 「에너지」節約型 産業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한편으로는 대체 「에너지」개발을 위한 政策支援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1980년대에는 石油뿐만 아니라 主要 原資材 등 資源武器化의 傾向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資源不足國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장기적인 資源確保策 수립 및 資源導入 「채널」의 多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는 것이 韓國經濟의 중대한 활로가 될 것이다.

物價變動率 推移

<表-16>

(單位: %)

	比 前 期 末			比 前 月		
	79. 11	80. 1	80.	4.	5.	6.
1. 全國都賣物價	6.2	22.2	4.3	1.6	2.4	0.3
{ 食 料 品	1.8	17.5	5.0	2.0	2.8	0.1
{ 食 料 品 以 外	8.7	24.2	4.1	1.4	2.2	0.4
{ 原 資 材	8.5	30.1	3.2	1.0	1.8	0.4
{ 資 本 材	5.3	12.2	3.6	3.5	0.1	0.0
{ 消 費 材	4.5	14.4	5.7	2.2	3.2	0.2
2. 全都市消費者物價	6.7	12.1	5.5	0.9	3.4	1.2
食 料 品	1.4	13.0	2.6	0.0	2.3	0.2
食 料 品 以 外	11.6	11.3	8.0	1.5	4.3	2.0
3. 輸 入 物 價	9.9	5.9	5.4	3.1	2.5	△ 0.3
4. 輸 出 物 價	0.0	1.4	0.7	0.3	0.8	△ 0.4

資料: 韓國銀行

5. 國際收支, 外換 및 國際金融

1980년 2/4 分期中 經常收支는 貿易外收支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輸出의 好調와 輸入增加勢鈍화에 따른 貿易收支赤字幅 축소에 힘입어 1,240 百萬「달러」 적자를 기록 1/4 分期보다 253 百萬「달러」가 축소되었다.

한편 資本去來에서는 長期資本導入(純)이 다소 好調를 보였으나 短期資本導入(純)이 줄어들어 전체 導入總規模는 1/4 分期보다 40 百萬「달러」가 감소, 1,126 百萬「달러」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綜合收支赤字는 1/4 分期보다 146 百萬「달러」가 줄어들어 515 百萬「달러」를 시현하고 있다.

그러나 2/4 分期末 현재 外換保有額은 金融機關 純借入 증대가 綜合收支赤字幅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1/4 分期보다 158 百萬「달러」 줄

어 든 5,419 百萬「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만성적인 經常收支赤字國인 韓國經濟는 開發政策推進, 國際收支赤字補填, 既存債務의 元利金償還을 위한 外換導入所要規模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1980년에 들어 景氣沈滯 현상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外換保有狀況과 對外債務狀況이 1974~1975년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지난 70년대의 막대한 海外借入이 韓國經濟의 구조적인 취약점으로 작용 經濟成長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는 데다가 國際金融市場의 제반 여건도 날로 악화되어 1970년대처럼 순조로운 海外資本導入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근본적으로는 하루 속히 經常收支를 赤字基調에서 黑字基調로 전환시켜야 하겠지만 세계 경제가 沈滯局面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現단계에서는 이같은 大轉換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國際收支要約表

(單位: 百萬「달러」)

<表-17>

	1979	1980		增減額	
	II	I	II	比前期	比前年同期
經常收支	-1,325.9	-1,492.8	-1,240.2	252.6	85.7
輸出 (F.O.B)	3,590.1	3,710.2	4,138.3	422.1	548.2
輸入	5,104.9	5,030.3	5,125.4	95.1	20.5
貿易收支	-1,514.8	-1,314.1	-987.1	327.0	527.7
貿易外受入	1,273.1	1,085.7	1,284.3	198.6	11.2
貿易外支給	1,202.3	1,354.7	1,651.5	296.8	449.2
貿易外收支	70.0	-269.0	-367.2	-98.2	-438.0
移轉去來(純)	118.1	90.3	114.1	23.8	-4.0
長期資本收支	440.5	272.9	506.0	233.1	65.5
借款 및 外國人投資(純)	195.9	354.0	409.6	55.6	213.7
其他	244.6	-81.1	96.4	177.5	-148.2
基礎支	-885.4	1,219.9	-734.2	485.7	151.2
短期資本收支	339.6	893.4	620.3	-273.1	280.7
誤差 및 漏落	24.0	-333.9	-400.8	-66.9	-424.8
綜合收支	-521.8	-660.4	-514.7	145.7	7.1
金融計定	521.8	660.4	514.7	-145.7	-7.1
負債	848.2	489.8	435.8	-54.0	-412.4
資産(增-)	-326.4	170.6	78.9	-91.7	405.3
外換保有額(-)	-314.9	130.7	168.0	27.8	472.9

資料: 韓國銀行

經常收支赤字와 外資調達

(單位: 百萬「달러」)

<表 - 18>

	1979. II		1980. I		1980. II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外資調達>	1,628.3	100.0	1,656.1	100.0	1,562.1	100.0
長期資本(純)	440.5	27.0	272.9	16.5	506.0	32.4
短期資本(純)	339.6	20.9	893.4	53.9	620.3	39.7
金融借入(純)	848.2	52.1	489.8	29.6	435.8	27.9
長期	76.9	4.7	166.7	10.1	262.1	16.8
短期	771.3	47.4	323.1	19.5	173.7	11.1
<外資運用>	1,628.3	100.0	1,656.1	100.0	1,562.1	100.0
經常收支赤字補填	1,325.9	81.4	1,492.8	90.1	1,240.2	79.4
金融機關資産增加	326.4	20.1	-170.6	-10.3	-78.9	-5.1
誤差 및 漏落	-24.0	-1.5	333.9	20.2	400.8	25.7

資料: 韓國銀行

단기적으로는 國際金融市場에서의 원활한 資金借入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와 並行하여 장기적으로는 國內景氣回復과 수출 증대를 통해 經常收支 黑字基調로의 轉換政策이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1980 년대에 들어 開途國의 對外債務負擔加重에 따른 國別信認度の 약화와 借入加算金利(Spread)의 상승, 상환 기간의 短期化 및 「롤·오버」(roll-over) 信用供與의 감소, 「유로」 은행의 貸出限度到來에 따른 소극적인 貸出活動, 國際高金利 현상에 의한 元利金償還負擔加重 등으로 國際金融市場의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한국은 첫째, 「유로·본드」市場 및 國際債券市場에 적극 진출, 長期債券市場 「채널」을 통한 長期資本調達을 도모해야 하며 둘째, IMF, IBRD 등의 信用制度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國際金融機構에서의 활동 영역을 확대해야 하고 셋째, 借入通貨와 借入市場의 다변화를 통한 원활한 資金借入 「채널」의 정비와 國際金融市場 동요에 의한 손실 또는 負擔加重을 극소화시킴과 동시에 넷째, 國際金融理論 및 實務經驗 축적을 위한 金融國際化的 積極推進과 다양한 先進金融技法의 吸收活用을 위한 國際金融專門體制 형성을 위한 政策支援을 강화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만성적인 經常收支赤字幅의 축소와 잠긴적인 黑字基調로의 이행을 위해 韓國經濟力의 構造的 強化와 貿易外收支의 악화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對策이 강구되어야 하며 성장의 주력 부문인 輸出의 증대를 위해 輸出産業의 國際競爭力強化와 交易條件의 改善, 輸出産業의 技術開發과 經營合理化를 통한 外貨稼得率의 提高, 勞動集約的商品輸出構造로부터 資本 및 技術集約商品輸出構造로의 轉換, 海外市場 개척과 輸出商品開發을 위한 노력 강화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IV. 맺 음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경제는 대체로 1979년 下半年 이후 OPEC 産油國의 지속적인 油價引上의 餘波下에서 成長鈍化, 高「인플레이」의 가중 및 실업 증대의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에 빠져 들고 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海外依存度가 높은 韓國經濟는 수출 부진에 따른 「마이너스」 成長, 國內外 消費需要減退에 따른 企業投資의 위축과 雇傭減少, 原油價 및 國際原資材價格上昇에 따른 상대적인 高「인플레이」 加重 등으로 成長, 物價, 雇傭 및 國際收支의 諸部門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같은 韓國經濟의 諸問題點은 본질적으로 1970년대의 輸出 「드라이브」 政策 위주의 高成長過程 중에서 諸部間의 균형이 部分的으로 와해되면서 간헐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이 세계경제가 沈滯局面으로 돌입함에 따라 급격한 속도로 일시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문제점들이 서로 괴리되고 상충되는 一面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經濟構造의 개선을 수반해야 하며 短時日內의 解決展望이 매우 불투명한 형편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韓國經濟의 제문제는 단순한 量的成長 「템포」의 후퇴가 아니라 전체적인 모순 構造의 脆弱點으로 파악되는 만큼 1980년대 韓國經濟의 문제점은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諸經濟部門의 相關關係와 均衡維持를 중시하는 각도에서 접근되어야 하고 이에 대처한 여하한 經濟政策도 단기적인 應急措置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항시 장기적인 보완조치가 並行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신중하게 計劃되고 伸

縮性 있게 시행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또한 1970년대에 開發經濟政策의 다양한 비호하에서 기형적인 外的成長에 그쳐 왔던 韓國企業들은 技術開發과 生産性向上 및 經營合理化를 통한 體質強化를 꾸준히 추구하면서 反社會的인 投機行爲를 통한 不當利潤 取得行爲를 불식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投資機會의 포착을 통해 能率極大化에 만전을 기하여 企業의 社會的, 國家的 責任에도 소임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先·後進國을 막론하고 전체적인 國民經濟의 調和로운 運用은 정부의 經濟施策이나 企業의 生産 및 投資活動이나 通貨當局의 獨自的인 通貨信用政策 運用에만 결코 의존하는 것이 아닌 만큼 國民各者의 숨은 노력이 1980년대 韓國經濟의 안정적인 성장과 다각적인 構造改善의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經濟運用過程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和合할 수 있는 姿勢가 先行되어야만 할 것이다.

☐ 허례허식을 추방합시다 ☐

○ 추방하자 허례허식

실천하자 근검절약

○ 허례허식 일소하여

복지국가 이룩하자